정읍시 상생지원센터 개소 지역 청년창업 성공 이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협약
기술 이전·장비 무료 사용

정읍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 성공을 이끌 마중물로 '상생지원센터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정읍시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분소장 황경화·이하 안전연)와 함께 전북 상생지원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청년발전기금(5년간 총 50억원)'을 재원으로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와 협약을 맺고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읍시 창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고, 사업에 참여할 예비 청년 창업자와 청년 기업 5개소를 모집하는 등 상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다.

모집된 입주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안전연이 보유한 60여 종류의 기술 목록 중 희망하는 기술을 선택하고, 지정 멘토에게 기술 이전을 받게 된다.

또 창업 전선에 나서기 전 특허권자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비롯해 공동연구와 인력 개발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공동 연구시설과 연구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과 예비창업자는 매년 성과 결과물 등을 평가받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대 3년간 입주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1년 내 창업을 시작해야 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전북 상생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 기술창업과 지역인재 채용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창업한 청년들이 지역의 사업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북 상생지원센터 관계자들이 개소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릿대 태우지 마세요"

군산시, 가축 먹이용 수거
논갈이 활용 농가 지원금도

군산시가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을 일괄 수거해 축산 농가에 가축 먹이용이나 바닥 깔개용으로 전달한다.

보리 수확기인 5~6월 보릿대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농민이 빠른 이앙을 위해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소각 시 불씨가 인근으로 날아가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며 불법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농민은 수집·배출의 불편함, 농업 관행(병충해 방지 등), 처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시는 또 보릿대를 잘게 절단해 논갈이한 농가에는 ha당 20만원, 축사 깔개 및 가축 먹이 등으로 활용하는 농가에는 ha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불법소각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기본형 공익직불금 5%를 감액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2022 청보리밭 축제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축제에는 16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 관광객 16만명 찾았다

지난달 30일부터 보름간 열려

고창군은 '2022 청보리밭 축제'에 16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 떨치GO! 마스크 잊GO! 청보리밭 GO!'를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군은 이번 축제로 6억6400만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위기 속 방역수칙 준수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호응도를 이끌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적은 예산에도 고창군, 축제위원회,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고창청보리밭축제가 경관농업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농장 일대는 6월 초까지 보리 들녘이 펼쳐지며 8월에는 해바라기, 9월에는 메밀밭으로 꾸며져 관광객을 맞이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익산시, 일손 부족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50곳 선정…320만원씩 보조금

익산시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마을에 공동급식을 지원한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업인 일손 부족 문제에 일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올해 1억6000만원을 활용, 지난 2월 마을 신청을 받아 50개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은 당초 마을에 조리원을 두고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마을별 도시락 배달 또는 식당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 같은 변화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인 가족 20인 이상 급식에 참여하는 농촌지역 마을과 도시지역 마을 중 농업인이 80% 이상인 마을이다.

참여 마을에는 각 32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급식 기간은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해 상·하반기 분할 운영이 가능하다.

도시락 배달 또는 식당 이용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은 현장에서의 농민들 호응이 큰 사업으로 바쁜 농번기에 급식 준비 일손을 줄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누수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시 사진·영상기록 '춘향찰칵' 통해 공유

1만7000건 업로드 10만건 조회

남원시가 사진·영상 저장소(아카이브) '춘향찰칵' 운영을 통해 행정 기록을 생생한 역사로 되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원시는 춘향찰칵 홈페이지(photo.namwon.go.kr) 개설 후 현재까지 다운로드 864건, 방문자 접속 1만6883건, 전체조회 수 10만8793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 자료의 기록 필요성을 인지하고 아날로그 기록물을 디지털로 전환·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사진·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동시에 모아둔 자료들 역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020년에 '춘향찰칵(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춘향찰칵 홈페이지에는 지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총 1만7570장의 사진과 영상 110개 등이 업로드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따른 행정변화와 다양한 지역 역사를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찰칵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그동안 귀중한 남원시 행정자료를 쌓아두기만 하는 수동적인 보관에서 능동적인 보관으로 전환됐다"면서 "앞으로도 '춘향찰칵'을 통해 남원의 과거와 역사를 품은 다양한 기록들이 다채롭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금연! 스마트 퀴즈쇼'

지역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순창군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퀴즈를 풀며 흡연의 해로움을 알아가는 '금연! 스마트 퀴즈쇼' 흡연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흡연예방교육은 관내 5개교 중·고등학교 학생 793명을 대상으로 향균 필름이 부착된 블루투스 리모컨을 활용해 오는 6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전교생이 1인 1리모컨으로 참여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예선 문제를 거쳐 본선퀴즈를 진행하게 된다.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배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중간중간 분위기 환기를 위해 플래시 게임을 넣어 지루함이 없는 수업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최종 획득점수 상위 1~3등에게 별도의 상품이 증정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